

# 서울市内 男女高校生の 吸煙에 관한 態度 調査研究

沈 英 愛

대원고등학교

## 〈目 次〉

I. 序 論	3. 情緒的 領域에 關한 吸煙態度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4. 倫理的 領域에 關한 吸煙態度
2. 研究의 目的	5. 其他 領域에 關한 吸煙態度
II. 研究設計 및 方法	6. 身體的·情緒的·倫理的·其他 領域間的 相關關係
1. 調査對象	IV. 要約 및 結論
2. 研究道具	V. 參考文獻
3. 分析節次 및 方法	附 錄
III. 調査結果 및 考察	英文抄錄
1. 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2. 身體的 領域에 關한 吸煙態度	

## 1. 序 論

###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어느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것은 그 人口의 健康이 維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어느 시대의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靑少年이 健全하고, 밝고, 바르게 成長하는 지의 여부는 그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重大한 問題<sup>1)2)</sup>라고 보겠다.

1950年代 이후, 담배의 人體有害論이 많은 연구자<sup>3)</sup>들에 의해 활발히 發表되어 폐암 발생은 물론 身體 모든 부분에 해독과 질병을 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지고 특히 女性 吸煙은 出生兒의 體重을 감소시키고 嬰兒死亡率을 높인다<sup>4)5)6)</sup>고 까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직접 흡연의 害영향 이외에도 吸煙자가 뱉어내는 烟배연기를 間接적으로 吸入하는 受動的 吸煙에 의해서도 본인들은 알게 모르게 大 被害가 發生한다는 보고<sup>7)</sup>가 있어도 吸煙人口는 增加하고 있고, 靑少年

1) 김수길, "한국소년범죄의 사회적으로요인에 의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별책, (1970)pp.19~48.

2) 전영자, "비행소년의 성격특성과 개인 및 환경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제1권2호, 1974, pp.201~216.

3) Larson, P.S. and Silvette, H.: Tobacco: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ies. William & Wilkins Co., 1968.

4) 정규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 제39권 5호, 1980, pp.319~322.

5) 박순영, "흡연과 건강", 인간과학, 제2권 6호, 1978, pp.35~40.

6) 조근수, "흡연과 건강은 당신의 선택", 보건세계, 1987. 3.

7) 조근수, "수동적 흡연의 피해", 보건세계, 1987. 2.

吸煙은 날로 심각해지고<sup>8)</sup> 있다.

한국개발연구소에 따르면 1987년 12월 현재 국내 成人 吸煙率은 40.3%로 이는 1982년 36.0%에 비해 4.3%나 增加한 것이다.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女性·靑少年 吸煙은 1987년 문교부 조사결과 男高生 55.1% 女高生 1.4%가 각각 吸煙한 經驗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1985년 전매청이 추정한 女性吸煙 人口는 1백 40만 4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sup>9)</sup>

吸煙은 高尙한 背景, 社會的 因習, 經濟的 여건, 개인的 性格과 人生觀 등 여러 要因이 잡다하게 關聯되어 있다<sup>10)</sup>고 볼 수 있고 靑少年이 吸煙하게 된 動機의 心理를 보면 成人을 模倣하고 싶은 衝動과 유혹적인 好奇心, 禁忌되어 있는 傳統的 集團의 規範에서 탈출하고 싶은 反抗心理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sup>11)</sup> 생각된다.

靑少年期는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成長期라는 점과 學業을 통하여 人格과 知能을 쌓아가는 시기로서 吸煙習慣이 고착되기 전에 올바른 教育과 指導를 해야 하며, 靑少年은 吸煙하면 안된다는 식의 社會的 規範으로서가 아니라 身體發育과 精神의 健全性을 위해 담배가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 가를 충분히 納得시켜 스스로 自己判斷에 입각하여 自體의 規範을 세우거나 自愛自重하는 民主 시민적 教養의 하나로서 自制力을 調整시킴으로써 靑少年의 도덕적 퇴폐경향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靑少年의 問題가 社會적으로 미치는 影響까지를 고려<sup>12)</sup>해 볼 때 著者는 靑少年들의 吸煙에 對한 態度를 조사·분석함으로써 吸煙이 健康에 미치는 重要性과 有害를 알게 함과 동시에 禁煙啓蒙教育을 실시할 수 있는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이 研究를 시도하였다.

## 2. 研究의 目的

본 研究의 一般的인 目的은 男女高校生의 吸煙에 關한 態度를 評價하고 장래 學生들의 禁煙教育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있다.

이러한 一般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目的을 通하여 이루고자 한다.

첫째, 男女高校生의 吸煙에 關한 態度를 身體的·情緒的·倫理的·其他 領域別로 파악한다.

둘째, 男女高校生의 吸煙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關聯要因 및 상대적으로 重要한 要因들을 身體的·情緒的·倫理的·其他 領域別로 탐색한다.

셋째, 身體的 領域, 情緒的 領域, 倫理的 領域·其他 領域別로 吸煙態度와의 相關關係를 알아본다.

## II. 研究設計 및 方法

### 1. 調查對象

1988년 10월 21일에서 10월 26일까지 6일간 서울시 내에 위치한 남자고교, 여자고교, 남녀공학고교 총 3개교에서 각 학년 2학급씩을 무작위 표집한 학생이 본 연구의 대상자가 되었다. 예비조사에 의해 학생이 응답 하기가 평이하게 개발된 설문지 720부를 배부한 후 입실교사에게 약 5분 정도의 充分한 說明을 하게 한 후 答을 하도록 하여 調查하였다.

回收된 설문지는 712부 였으나 이중 記錄이 미비하거나 結果分析이 곤란한 65부를 제외한 647부를 본 研究의 資料로 利用하여 分析하였다.

### 2. 研究道具

吸煙態度를 測定한 道具는 1988년 8월 23일에 남녀고교생 120명에게 16절치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10여 분간 “吸煙에 關한 學生 들의 느낌”이란 自由記述式 作文을 통하여 예비조사한 것에 根據를 두고 있다.

학생들이 表출하고 있는 吸煙態度는 肯定的 表現 20問項, 否定的 表現 40問項의 單問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이를 Likert 5點尺度로써 계량화 하였는데 吸煙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는 態度를 1點부터 吸煙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態度를 5點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構造化 하였다.

8) 한국전매청, 전매청 통계연보, 1982.

9) 중앙일보, “여성·靑소년 흡연연구 늘어났다”, 1988.4.6(9면)

10) 최신해, “금연의학”, 대한의학협회지, 제10권, 1967, pp.577~580.

11) 박형규, “靑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社會정책적 고려”, 대한의학협회지, 제10권 8호, 1967.

12) 박형규, 상계서, 547면.

### 3. 分析節次 및 方法

첫째, 본 研究의 모든 資料는 SPSS package 를 利用하여 電算處理하였다.

둘째, 본 研究에서 종속변수가 되고 있는 學生들의 吸煙態度는 예비조사에서 學生들이 表출한 60개의 單문을 要因分析(Factor analysis)한 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igen value 1.0 이상인 네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要因 1,2,3,4를 각각 身

體的·情緒的·倫理的 및 기타 領域으로 範疇化命名하였다.

獨立變數로는 연령, 性別, 학년, 부모생존여부, 의 학력, 母의 학력, 가족수, 형제수, 가족내의 자수, 吸煙경험정도,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의 등을 선정하였다.

셋째, 吸煙態度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記述統計(Descriptive statistics)를 利用하였다.

네째, 吸煙態度의 네 領域 즉 身體的 領域, 情

표 1. 각 실문 문항변수별 요인분석결과

문항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factor IV
1. 적당량 흡연하면 좋다.	0.29	0.29	0.40	0.22
2. 흡연하면 수면을 줄일 수 있다.	0.08	0.01	0.32	0.22
3. 흡연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	0.04	0.07	0.24	0.21
4. 흡연은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0.17	0.28	0.32	0.20
5. 남자의 흡연은 용납할 수 있다.	0.11	0.42	0.53	0.02
6. 시간과 장소를 알고 피우면 좋다.	0.02	0.24	0.29	0.22
7. 필요시 피우면 무방하다.	0.04	0.37	0.37	0.20
8. 성인은 흡연해도 된다.	0.13	0.35	0.44	0.02
9. 여성흡연을 용납할 수 있다.	0.04	0.13	0.13	0.64
10. 남학생 흡연은 편찮다.	0.26	0.30	0.52	0.27
11. 남에게 해가 안되면 편찮다.	0.10	0.29	0.37	0.29
12. 흡연하는 모습은 멋있어 보인다.	0.04	0.10	0.73	0.02
13. 흡연에 호기심이 있다.	0.15	0.22	0.60	0.00
14. 흡연하면 기분전환이 된다.	0.14	0.24	0.51	0.17
15. 흡연은 습관상 피우는 것이다.	-0.13	0.19	0.03	0.09
16. 흡연하면 안정감이 생긴다.	0.09	0.22	0.37	0.22
17. 고교생의 흡연은 어른 흉내로 피우는 것이다.	-0.31	-0.17	-0.10	-0.16
18. 분위기 있어 보이고 매력적이다.	0.03	0.11	0.71	-0.00
19. 담배 안피는 남자는 남자같지 않다.	0.11	-0.01	0.41	0.02
20. 담배 피는 것은 멋있는 것 같다.	0.04	0.11	0.75	-0.03
21.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0.49	0.01	0.22	0.18
22. 흡연하면 임신·태아에 나쁜영향을 준다.	0.43	-0.02	0.04	0.16
23.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0.66	0.02	0.09	0.05
24. 흡연하면 암을 일으킨다.	0.72	0.03	0.15	0.07
25. 흡연하면 폐에 나쁘다.	0.68	-0.05	0.17	0.11
26. 흡연하면 머리가 아파진다.	0.60	0.19	0.00	0.05
27. 흡연하면 정신을 흐리게 한다.	0.60	0.21	0.02	0.11
28. 흡연하면 치아색이 변한다.	0.58	0.09	0.04	0.00
29.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0.48	0.21	0.22	0.16

문항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factor IV
30. 흡연하면 기침·가래등 기관지가 나빠진다.	0.59	0.04	0.13	0.11
31. 지나친 흡연은 몸에 나쁘다.	0.50	-0.04	0.14	0.15
32. 흡연은 죽음을 초래한다.	0.67	0.23	0.08	0.05
33. 흡연하면 피부가 나빠진다.	0.57	0.32	0.08	-0.07
34. 흡연하면 기억력이 나빠진다.	0.58	0.29	-0.07	-0.00
35. 흡연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0.57	0.31	0.07	0.01
36. 흡연하면 손끝이 누래진다.	0.55	0.31	0.01	-0.04
37. 담배연기는 눈과 목구멍을 아프게 한다.	0.54	0.20	0.18	-0.06
38. 흡연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0.52	0.23	0.29	0.17
39. 여성은 흡연하면 안된다.	0.14	0.18	0.00	0.71
40. 학생 흡연은 나쁘다.	0.36	0.32	0.31	0.42
41. 선생님이 흡연하면 나쁘다.	0.19	0.46	0.28	0.11
42. 흡연하는 여학생은 나쁘다.	0.18	0.22	0.06	0.62
43. 성인도 흡연하면 안된다.	0.19	0.51	0.28	0.09
44. 버스나 전철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흡연은 안된다.	0.19	0.07	0.19	-0.03
45. 담배가 싫다.	0.36	0.47	0.48	0.11
46. 담배냄새가 나쁘다.	0.37	0.40	0.41	0.04
47. 흡연자가 이해가 안간다.	0.24	0.60	0.32	0.17
48. 흡연하는 사람은 지저분하고 천해 보인다.	0.18	0.68	0.23	0.10
49. 흡연은 외관상 안좋다.	0.20	0.59	0.33	0.06
50. 흡연하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인다.	0.12	0.69	0.12	0.11
51. 흡연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0.21	0.52	-0.00	0.15
52. 금연교육·제몽자료가 필요하다.	0.32	0.23	0.14	0.09
53. 흡연은 마약과 같이 나쁜 것이다.	0.46	0.46	0.23	0.12
54. 담배 수입·생산·판매를 줄이거나 없애자	0.36	0.39	0.23	0.03
55. 흡연하면 돈이 들어 나쁘다.	0.33	0.42	0.02	0.03
56. 금연운동을 원한다.	0.42	0.40	0.26	0.05
57. 담배는 어른이 되어도 피지 않겠다.	0.37	0.41	0.42	0.07
58. 흡연자와 교제 안하겠다.	0.09	0.54	0.12	0.16
59. 법으로 흡연을 막아야 한다.	0.19	0.61	0.20	0.09
60. 흡연실·흡연구역을 만들자	0.29	0.12	0.07	0.03
EIGEN VALUE	5.89	3.82	1.98	1.62

領域, 倫理的 領域, 其他 領域別로 諸 獨立變數 間의 差의 檢定은  $\chi^2$ -test를 利用하였고, 關係의 方向과 關係의 程度는 Pearson 相關係數를 利用하였고, 吸煙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諸 變數의 相對的인 寄與度는 段階的 回歸分析을 利用하여 分析하였다.

### Ⅲ. 調查結果 및 考察

#### 1. 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對象者의 一般의 特性으로 性別, 학년, 연령, 父의 學力, 母의 學力, 부모생존유무, 가족수, 형제수를 調查하였고 吸煙과 관련된 特性으로 가족내의 吸煙者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	구분	NO.	(%)	비고
학생분포	1학년남학생	108	(16.7)	
	2학년남학생	103	(15.9)	
	3학년남학생	111	(17.2)	
	1학년여학생	108	(16.7)	
	2학년여학생	116	(17.7)	
	3학년여학생	101	(15.6)	
	연령	15	95	
16		203	(31.4)	
17		229	(35.4)	
18		118	(18.2)	
19		2	(0.3)	
가족수	2	5	(0.8)	평균±표준편차 4.93 ± 1.08
	3	40	(6.2)	
	4	176	(27.2)	
	5	261	(40.3)	
	6	116	(17.9)	
	7	35	(5.4)	
	8	14	(2.2)	
형제수	1	27	(4.2)	평균±표준편차 2.78 ± 0.88
	2	232	(35.9)	
가족내의흡연자수	3	273	(42.2)	
	4	86	(13.3)	
	5명 이상	29	(4.5)	
	0	210	(32.5)	
	1	326	(50.4)	
	2	101	(15.6)	
	3명 이상	10	(1.5)	
부의학력	계	647	100.0)	
	중졸이하	57	(8.8)	
	고졸	213	(32.9)	
	대졸이상	350	(54.1)	
모의학력	계	620	(95.8)	
	중졸이하	150	(23.2)	
	고졸	354	(54.7)	
	대졸이상	140	(21.6)	
부모생존유무	계	644	(99.5)	
	부모생존	617	(95.4)	
흡연경험정도	부모는모만생존	30	(4.6)	
	비흡연자	522	(80.7)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과거 흡연자	33	( 5.1)
	1-4 / mon	10	( 1.5)
	1-6 / week	17	( 2.6)
	1-5 / day	36	( 5.6)
	6-10 / day	19	( 2.9)
	10이상 / day	10	( 1.5)
	좋아 보인다	42	( 6.5)
	그저 그렇다	177	(27.4)
	다소 안피웠으면 좋겠다	316	(48.8)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112	(17.3)	
	계	647	100 .0

數, 吸煙經驗程度, 教師吸煙에 관한 수용도 등을 調査하였다.

연령은 17세가 35.4%, 16세가 31.4%, 18세가 18.2%, 15세가 14.7%로 나타났으며 平均年齡은 16.58세였다. 함께 사는 가족수는 5명이 40.3%로 제일 높았고 4명이 27.2%, 6명이 17.9%, 7명 이상도 7.6%로 나타났으며, 평균 4,93명이 주거하고 있었다.

함께 사는 형제수는 3명이 42.2%, 2명이 35.9%, 1명이 4.2%, 4명 이상이 17.8%로 나타났고, 平均子女數는 2.78명이었다.

가족내의 흡연자수는 금연가족이 32.5%, 1명이 흡연하는 경우가 50.4%, 2명 이상이 15.6%로 나타났으며, 1家族當 平均吸煙者 數는 0.86명으로 나타났.

父의 學歷은 고졸이상이 87%로 나타났으며, 母의 學歷도 고졸이상이 76.3%에 달했다.

父母生存有無는 부모생존이 95.4%에 해당했고, 양친 사망의 경우는 한 件도 없었다.

吸煙經驗程度는 비흡연자가 80.7%로 나타났고, 과거흡연자 및 현재 吸煙者가 19.3%로 나타났. 하루에 한 개피 이상 피는 자가 10%로 나타나 潛在的 學生吸煙人口까지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教師吸煙에 關한 受容度에서는 禁煙을 원하는 학생이 66.1%로 나타났고 衝動心理가 있는 학생은 6.5%

에 불과했다.

## 2. 身體的 領域에 關한 吸煙態度

肯定的 表現問項 3問項, 否定的 表現問項 17問項 總 20問項으로 구성된 身體的 領域에 關한 吸煙態度는 <表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1.78로서 대체로 吸煙을 否定하는 態度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장 否定的인 態度를 보인 문항은 "㉑ 지나친 吸煙은 몸에 나쁘다"로 평균 1.12였고, 다음이 "㉒ 吸煙하면 임신·태아에 나쁜 영향을 준다"로 平均 1.13이었다. 반면, 가장 肯定的인 態度를 보인 문항은 "㉓ 吸煙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로 平均 2.72를 나타냈다.

Banyai (1976)<sup>13)</sup> 女性吸煙은 불임률을 높이고 유산률을 높이며, Herriot (1962)<sup>14)</sup>는 妊娠中の 吸煙은 신생아의 체중을 감소 시킨다고 했으며 Harvey (1977)<sup>15)</sup>는 妊娠中の 吸煙은 임신시에 吸煙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높은 주산기 사망률을 나타낸다고 각각 보고하여 妊娠中の 吸煙이 태아에 重要的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吸煙이 妊娠에 身體的인 惡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연구의 대상인 高校生 이외에도 최의순과 박재순(1980)<sup>16)</sup>의 大學生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3) Banyai A.L.Smoking, Some of its less publicized sequel, chest 69:1, 1976.

14) Herriot A.et, Cigarette Smoking as a carcinogen, Am.Rev.Resp.Dis 171:105, 1975.

15) Harvey Goldstein(1977). Smoking in pregnancy:some notes on the statistical controversy. Brit.J.Preve. Soci. Med., 31,13-17.

16) 최의순, 박재순, "서울시내 여대생의 흡연실태조사", 중앙대학, 제38권 5호, 1980, pp.297~306.

표 3-1. 신체적 영역에 관한 흡연태도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전혀 안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표현 문항	1	2.30 ± 1.34					
	2	2.13 ± 1.29					
	3	2.72 ± 1.40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매우 그렇다			전혀 안그렇다	
부정 표현 문항	21	1.27 ± 0.62					
	22	1.13 ± 0.43					
	23	1.56 ± 0.88					
	24	1.57 ± 0.84					
	25	1.31 ± 0.60					
	26	1.96 ± 1.07					
	27	1.88 ± 1.05					
	28	1.56 ± 0.85					
	29	1.83 ± 1.19					
	30	1.32 ± 0.62					
	31	1.12 ± 0.38					
	32	1.90 ± 1.09					
	33	2.01 ± 1.12					
	34	1.86 ± 0.99					
	35	2.08 ± 1.13					
36	2.28 ± 1.20						
37	1.76 ± 0.98						
신체적영역총평균		1.78 ± 0.56					

“吸煙이 태아발육을 저하시킨다”에 89.11%가 “그렇다”고 보고하여 學生들은 吸煙이 妊娠·胎兒에 미치는 影響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밖에 이영숙(1983)<sup>17)</sup>은 “吸煙이 人體에 有害하다”고 알고 있는 學生이 98.7%, 정광모(1986)<sup>18)</sup>는 “人體에 해롭다”가 33.6%, “발암물질이 있다”가 21.6%, “인신부에게 해롭다”가 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경임(1980)은<sup>19)</sup> “吸煙이 건강에 나쁘다”가

80.2%로 각각 보고하였고, Kelson (1975)은<sup>20)</sup> “人體에 有害하다”고 응답한 學生이 91%로 보고하여 외국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결과를 보면 學生들은 吸煙이 身體的 健康유지에 有害한 要因이 되리라는 事實은 알고 있으나, 그 응답양상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로 살펴 볼 때, 人體的 機能과 관련된 구체적인 疾病觀으로 까지는 知識의 水準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이영숙,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學生들의 吸煙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보건대학원, 1983.

18) 정광모, “吸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소비자연맹, 1986.7.

19) 정경임, “일부 남자고등학생들의 吸煙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104(80.2), pp.60~67.

20) Kelson, S.R., Pulella, J.L., and Otterland, A., “The Growing Epidemic, A Survey of Smoking Habits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among students in Grades 7 through 12 in Toledo and Lucas Country Public Schools-1964 and 1971”, Amer.J.Pub.H., Vol.65, No.9,1975,pp.923-938.

표 3-2. 「적당량 흡연하면 좋다」에 관한 흡연태도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안그렇다	전혀안그렇다	계
		No.(%)	No.(%)	No.(%)	No.(%)	No.(%)	
성 별	남	22(6.8)	65(20.2)	70(21.7)	45(14.0)	120(37.3)	322(100.0)
	여	19(5.8)	48(14.8)	60(18.5)	38(11.7)	160(49.2)	325(100.0)
		$\chi^2 = 9.83$		df = 4	P < 0.05		
흡 연 경 험 정 도	비 흡 연 자	21(4.0)	74(14.2)	96(18.4)	68(13.0)	263(50.4)	522(100.0)
	과 거 흡 연 자	1(3.0)	5(15.2)	11(33.4)	8(24.2)	8(24.2)	33(100.0)
	1-4 / mon	2(20.20)	2(20.0)	3(30.0)	1(10.0)	2(20.0)	10(100.0)
	1-6 / week	1(5.9)	8(47.1)	2(11.8)	3(17.6)	3(17.6)	17(100.0)
	1-5 / day	12(33.2)	9(25.0)	11(30.6)	2(5.6)	2(5.6)	36(100.0)
	6-10 / day	4(21.1)	10(52.5)	3(15.8)	1(5.3)	1(5.3)	19(100.0)
	10이상 / day	0(0.0)	5(50.0)	4(40.0)	0(0.0)	1(10.0)	10(100.0)
			$\chi^2 = 138.63$		df = 24	P < 0.01	
교 사 흡 연 태 도	좋 아 보 인 다	9(21.4)	13(31.0)	12(28.6)	3(7.1)	5(11.9)	42(100.0)
	그 저 그 령 다	14(7.9)	38(21.5)	42(23.7)	22(12.4)	61(34.5)	177(100.0)
	다 소 안 피웠 으 면 좋 겠 다	16(5.1)	46(14.6)	66(20.9)	47(14.9)	141(44.5)	316(100.0)
	절 대 로 피우 면 안 된 다	2(1.8)	16(14.3)	10(8.9)	11(9.8)	73(65.2)	112(100.0)
			$\chi^2 = 66.32$		df = 12	P < 0.01	
계		41(6.3)	113(17.5)	130(20.1)	83(12.8)	112(17.3)	647(100.0)

“㉓吸煙하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1,56으로 비교적 강한 肯定的 態度를 나타냈다.

Taylor (1963)<sup>21)</sup>는 일상생활에서 과음, 과식, 운동 부족 그리고 吸煙은 인간의 壽命을 短縮시킨다고 했으며 Hawthorne (1978)<sup>22)</sup>은 흡연과 사망율에 대한 연구보고에서 壽命의 短縮과 吸煙量이 比例한다고 밝혀 吸煙이 壽命을 短縮시킨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또한 Bower (1964)<sup>23)</sup>에 의하면 1일 20개피의 捲煙 흡연자는 7년의 壽命減縮이 있고, 1일 40개피의 흡연자는 12년의 壽命短縮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영숙 (1983)<sup>24)</sup>은 吸煙이 “壽命을 短縮시킨다”에 “그렇지 않다”고 한 학생들이 18.9%, 최의순과 박재순(1980)<sup>25)</sup>은 20.79%로 각각 보고하여, 새삼 그릇

된 知識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表 3-2〉는 身體的 領域中 “적당량 吸煙하면 좋다”는 肯定的 表現의 문항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變數別로 記표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男學生이 女학생보다 다소 吸煙에 대해 好意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흡연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5.1%의 학생이 過去 吸煙經驗이 있었고, 14.2%의 학생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現在 吸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結果는 동일한 고등학생이 연구의 대상이었던 이영숙(1983)<sup>26)</sup>이 보고한 59.5%, 조희(1979)<sup>27)</sup>가 보고한 55.73%, 방영옥(1979)<sup>28)</sup>이 보

21) Taylor, I., Quoted in Lancet(Symposium), Vol. 1, 1963, pp.493-494.

22) Hawthorne, V.M., Smoking & Health, J.Epi. Comm. H., Vol. 32, No.4, 1978, pp.260-266.

23) Bower, H.M., "Old Age in Western Society", Med. J. Aust., Vol.2, 1964, pp.325-332.

24) 이영숙, 전제서, 30면.

25) 최의순, 박재순, 전제서, 300면.

26) 이영숙, 전제서, 8면.

27) 조희, “일부 지방고등학생들의 흡연·음주·습관성약물 사용 양상에 관한 조사(고=中心)”, 적십자 간호, 2.2, 1979, pp.69-76.

28) 방영옥, “일부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적십자 간호, 2.2(1979) pp.95-105.



표 3-3. 신체적 긍정문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연령	성별	학년	부 생 유 무	부 의 학 력	모 의 학 력	가족수	형제수	가족내의 흡연자수	흡연경험 정 도	교사흡연 에 관 한 수 용 도
1	0.09*	-0.10**	0.08*	-0.02	0.00	0.00	0.04	0.05	0.15**	0.36**	-0.28**
2	0.15**	-0.05	0.13**	0.06*	0.03	0.04	-0.05	-0.01	0.01	0.19**	-0.18**
3	0.12**	-0.05	0.11**	-0.03	0.06	0.04	-0.01	-0.01	0.01	0.16*	-0.12**

\*P < 0.05    \*\*P < 0.01

고하고 있는 56.85% 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研究方法 調査時期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潛在的 學生吸煙人口까지 포함시킨다면 學生吸煙人口의 비중이 상당하리라는 것이 예측된다.

한편, 吸煙經驗에 따라서 흡연에 관한 態度觀에는 큰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즉 비흡연자가 “적당량 吸煙하면 좋다”라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否定을 보이고 있는 응답이 50.4%로 相反수를 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吸煙經驗이 增加할 수록 肯定的 態度를 보이고 있는데, 최소한 하루에 1개피 이상 吸煙하는 학생의 경우 “다소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의 응답정도는 50.0%~78.2%로 吸煙에 관한 肯定的 態度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結果는 統計的으로 매우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教師의 吸煙行爲는 학생들에게 어떤 影響을 주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反應도 다르리라 생각되어 教師의 吸煙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을 알아 보았다.

教師가 吸煙할 때 무관심하거나 禁煙을 願하는 群보다 吸煙衝動心理를 느끼는 학생의 52.4%가 吸煙에 대해 肯定的 態度를 보이고 있었다. 즉 교사의 흡연이 吸煙經驗群에게 더 커다란 衝動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에 非吸煙群에서는 교사가 禁煙하기를 더 많이 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학교에서의 教師吸煙은 학생에게 刺戟要因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의 吸煙始作動機가 教師의 吸煙行爲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Pezer (1964)<sup>29)</sup>는 教師의 吸煙習慣과 態度가 학생들의 吸煙行爲에 影響을 준다고 하였고, Chen 과

Rakip (1975)는<sup>30)</sup> 교사가 학생들에게 禁煙教育을 실시할 때 吸煙教師는 소극적으로 학생들의 금연교육을 지도하고 있으며, 教師가 吸煙을 中斷한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身體的 긍정문항과 諸 독립변수간의 相關關係는 (표 3-3)에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과 흡연경험정도, 학년의 3문항 모두 순상관계에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고, 教師吸煙에 관한 受容도와는 逆相關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학년, 흡연경험정도가 增加할 수록 吸煙에 대해 肯定的 態度를 보이고 있었고, 教師吸煙에 無關心하고, 禁煙하기를 願할 수록 吸煙에 대해 否定的 態度를 보이고 있었다.

흡연태도와 關係의 程度가 가장 깊은 變數는 學生의 吸煙經驗程度가 0.36으로 나타났다.

吸煙에 관한 否定的 表現 身體問項中 有意的 差異를 보였던 독립변수와의 關係를 記號한 것이 (表 3-4)이다.

“吸煙하면 폐에 나쁘다”는 문항에 관해서 吸煙經驗程度가 增加할 수록 “매우 그렇다”는 응답 반응이 적어지고 있는 경향이 엿보이는데 非吸煙者가 79.9%인데 비해 하루에 10개피 이상 吸煙하는 학생이 26.3%~40.0%의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방영옥(1979)<sup>31)</sup>은 “吸煙은 폐암의 원인이다”에서 60.76%가 그렇다고 하였고, “吸煙은 기관지염을 악화시킨다”에서 51.6%가 그렇다고 認定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吸煙은 肺癌과 직접적인 原

29) Pezer, V., "Teachers' Habits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Canadian Smoking and Health programs(Sept.), 1964.

30) Chen, T.L., Rakip, W.R., "The Effect of the teachers' smoking behavior on their involvement in smoking education in the schools". J. of School Health. Vol. XLV, No. 8, 1975, pp.455~461.

31) 방영옥, 전제서, 99면.

표 3-4. 신체적 영역의 부정문항에 관한 흡연태도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안그렇다	전혀안그렇다	계
		No.(%)	No.(%)	No.(%)	No.(%)	No.(%)	
흡연하면 폐에 나쁘다							
흡연경험정도	비 흡연자	417(79.9)	83(15.9)	21( 4.0)	0( 0.0)	1( 0.2)	522(100.0)
	과거흡연자	25(75.8)	7(21.2)	1( 3.0)	0( 0.0)	0( 0.0)	33(100.0)
	1-4 /mon	4(40.0)	3(30.0)	2(20.0)	1(10.0)	0( 0.0)	10(100.0)
	1-6/week	7(41.2)	10(58.8)	0( 0.0)	0( 0.0)	0( 0.0)	17(100.0)
	1-5 /day	19(52.8)	13(36.1)	3( 8.3)	0( 0.0)	1( 2.8)	36(100.0)
	6-10/day	5(26.3)	11(57.9)	3(15.8)	0( 0.0)	0( 0.0)	19(100.0)
	10이상/day	4(40.0)	4(40.0)	2(20.0)	0( 0.0)	0( 0.0)	10(100.0)
계		481(74.3)	131(20.2)	32( 5.0)	1( 0.2)	2( 0.3)	647(100.0)
$x^2 = 141.36$ $df = 24$ $P < 0.01$							
흡연하면 피부가 나빠진다							
성 별	남	95(29.5)	76(23.6)	95(29.5)	37(11.5)	19( 5.9)	322(100.0)
	여	192(59.1)	81(24.9)	36(11.1)	12( 3.7)	4( 1.2)	325(100.0)
계		287(44.3)	157(24.3)	131(20.2)	49( 7.6)	23( 3.6)	647(100.0)
$x^2 = 82.04$ $df = 4$ $P < 0.01$							

표 3-5. 신체적 부정문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연 령	성 별	학 년	부모생존 유 무	부의학력	모의학력	가족수	형제수	가족내의 흡연자수	흡연경험 정 도	교사흡연 에 관한 수 용 도
21	0.07*	-0.12**	0.06	-0.00	0.02	-0.00	-0.00	-0.00	0.05	0.26**	-0.22**
22	0.07*	-0.09**	0.08*	0.00	0.03	0.01	-0.02	-0.03	0.01	0.21**	-0.17**
23	0.03	-0.22**	0.00	-0.00	-0.00	-0.04	-0.02	-0.05	0.04	0.22**	-0.19**
24	0.02	-0.20**	0.00	0.00	0.02	-0.05	0.00	-0.00	0.08*	0.26**	-0.28**
25	0.08*	-0.16**	0.08*	-0.05	0.01	-0.02	0.00	-0.00	0.11**	0.27**	-0.22**
26	0.12**	-0.13**	0.10**	0.04	0.00	-0.06*	-0.00	-0.01	0.06*	0.23**	-0.20**
27	0.14**	-0.01	0.15**	0.06*	0.04	-0.03	-0.00	-0.00	0.08*	0.20**	-0.17**
28	0.11**	-0.12**	0.12**	0.03	-0.00	-0.09**	-0.03	-0.02	0.02	0.27**	-0.20**
29	0.05	-0.12**	0.03	0.00	0.02	-0.01	0.01	-0.00	0.12**	0.25**	-0.24**
30	0.03	-0.10**	0.03	0.01	-0.05	-0.08*	-0.05	-0.04	0.06	0.23**	-0.15**
31	0.06	-0.13**	0.07*	0.02	0.06	0.05	-0.02	-0.03	0.07*	0.19**	-0.16**
32	0.11**	-0.24**	0.10**	-0.04	0.00	-0.04	0.05	0.01	0.08*	0.25**	-0.20**
33	0.04	-0.34**	-0.00	-0.01	-0.07*	-0.12**	-0.02	-0.04	0.09**	0.24**	-0.20**
34	0.08*	0.00	0.07*	-0.01	-0.06	-0.13**	0.01	0.00	0.08*	0.10**	-0.13**
35	0.10**	-0.12**	0.10**	0.02	-0.02	-0.07*	-0.00	-0.01	0.08*	0.27**	-0.20**
36	0.09*	-0.10**	0.07*	0.02	-0.09*	-0.16**	0.00	-0.01	0.03	0.23**	-0.18**
37	0.06	-0.26**	0.03	0.05	0.00	-0.09**	-0.03	-0.04	0.08*	0.28**	-0.24**

\*P < 0.05    \*\*P < 0.01

표 3-6. 신체적 영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학	년	연	성	모의	가족내의	흡연경험	교사흡연에
		령	별	학력	흡연자수	정	관한수용도
긍정표현문항	0.10 (P<0.00)	0.12 (P<0.00)	-0.23 (P<0.00)	-0.10 (P<0.00)	0.11 (P<0.00)	0.36 (P<0.00)	-0.31 (P<0.00)
부정표현문항	0.10 (P<0.00)	0.12 (P<0.00)	-0.23 (P<0.00)	-0.10 (P<0.00)	0.11 (P<0.00)	0.36 (P<0.00)	-0.31 (P<0.00)

표 3-7. 단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신체적영역 흡연태도의 영향요인

	R SQUARE	RSQ CHANGE	B	BETA
흡연경험정도	0.13290	0.13290	0.9865063E-01	0.24668**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0.15989	0.02699	-0.1166953	-0.17551**
모의학력	0.16764	0.00775	-0.5875460E-01	-0.08588**
성 별	0.17389	0.00625	-0.1071695	-0.09155**
가족내의 흡연자수	0.17722	0.00333	0.1740845E-01	0.05842**
R <sup>2</sup> = 0.17722 ADJUSTED R <sup>2</sup> = 0.17080 F = 27.6128**				
흡연경험정도	0.13290	0.13290	0.9865063E-01	0.24668**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0.15989	0.02699	-0.1166953	-0.17551**
모의학력	0.16764	0.00775	-0.5875460E-01	-0.08588**
성 별	0.17389	0.00625	-0.1071695	-0.09155**
가족내의 흡연자수	0.17722	0.00333	0.1740845E-01	0.05842**
R <sup>2</sup> = 0.17722 ADJUSTED R <sup>2</sup> = 0.17080 F = 27.6128**				

\*P < 0.05    \*\*P < 0.01

因的 關係가 認定되고 있으며 吸煙者에는 肺癌에 의한 死亡危險率이 非吸煙者의 13배 이상이고 흡연량, 흡연기간과 正比例하며 또 吸煙을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危險率은 더욱 增加되며 禁煙으로 死亡率을 減少시킬수 있다<sup>32) 33)</sup>고 한다. 또한 吸煙은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의 주요 原因이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도 吸煙者에 더 많이 發生하며 吸煙量에 比例한다고 했다.<sup>34) 35)</sup>

“吸煙하면 피부가 나빠진다”를 認定하는 성별 차이는 남학생 보다는 女學生의 受容정도가 커서 “매우 그렇다”의 경우, 각각 29.5%, 59.1%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皮膚가 미용관리에 關連되는 속성이 있어서 감수성이 예민한 女高生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身體的 否定表現 문항과 諸 변수간의 相關關係는 (表 3-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肯定表現 문항의 相關關係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特記할 만한 것으로는 그 외에 母의 학력과 (Pearson 相關係數 -0.06~-0.16) 대체로 逆關係에서 유의했고, 家族內 吸煙者數와는 (Pearson 상관계수 0.06~0.11) 順相關關係에서 유의한 關係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結果를 身體的 領域別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것이 (表 3-6)인데 否定的 表現이던 肯定的 表現이던 크게 關係없이 제 獨立變數와 關係의 정도가 가장 깊은 변수는 吸煙經驗程度와 教師吸煙에 關

32) 김기호, “흡연과 폐암”, 대한의학협회지, 10권8호, 1967, pp.567~569.

33) 김영설, 이찬세,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문헌고찰”, 결핵 및 호흡기 질환, 24: 3, 1977, pp.119~130.

34) 한용철, “흡연과 기관지염”, 대한의학협회지, 10권8호, 1967, pp.571~572.

35) 김영설, 이찬세, 전계서, 128면.



표 4-2. 정서적 영역의 긍정문항에 관한 흡연태도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안그렇다	전혀안그렇다	계
		No.(%)	No.(%)	No.(%)	No.(%)	No.(%)	
학 년	1 학 년	16(7.4)	35(16.2)	37(17.1)	29(13.4)	99(45.9)	216(100.0)
	2 학 년	4(1.8)	25(11.4)	46(21.0)	40(18.0)	104(47.5)	219(100.0)
	3 학 년	5(2.4)	29(13.7)	73(34.4)	24(11.3)	81(38.2)	212(100.0)
	$\chi^2 = 33.24$ df = 8 P < 0.01						
성 별	남	13(4.0)	51(15.8)	88(27.3)	49(15.2)	121(37.7)	322(100.0)
	여	12(3.7)	38(11.7)	68(20.9)	44(13.5)	163(50.2)	325(100.0)
	$\chi^2 = 10.96$ df = 4 P < 0.05						
계		25(3.9)	89(13.8)	156(24.1)	93(14.4)	284(43.8)	647(100.0)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안그렇다	전혀안그렇다	계
		No.(%)	No.(%)	No.(%)	No.(%)	No.(%)	
흡연에 호기심이 있다							
성 별	남	43(13.4)	73(22.7)	65(20.2)	46(14.3)	95(29.4)	322(100.0)
	여	13(4.0)	19(5.8)	37(11.4)	26(8.0)	230(70.8)	325(100.0)
$\chi^2 = 33.24$ df = 8 P < 0.01							
흡연경험 정도	비 흡 연 자	25(4.8)	54(10.3)	67(12.8)	62(11.9)	314(60.2)	522(100.0)
	과 거 흡 연 자	4(12.1)	12(36.4)	10(30.3)	3(9.1)	4(12.1)	33(100.0)
	1-4 / mon	2(20.0)	3(30.0)	3(30.0)	1(10.0)	1(10.0)	10(100.0)
	1-6 / week	3(17.6)	8(47.1)	4(23.5)	1(5.9)	1(5.9)	17(100.0)
	1-5 / day	13(36.2)	8(22.2)	8(22.2)	3(8.3)	4(11.1)	36(100.0)
	6-10 / day	5(26.3)	5(26.3)	6(31.6)	2(10.5)	1(5.3)	19(100.0)
	10이상 / day	4(40.0)	2(20.0)	4(40.0)	0(0.0)	0(0.0)	10(100.0)
	$\chi^2 = 169.81$ df = 24 P < 0.01						
계		56(8.7)	92(14.2)	102(15.8)	72(11.1)	325(50.2)	647(100.0)

能力하고 한심해 보인다"의 문항이 평균 3.69로 가장 높았고, "담배 냄새가 나쁘다"는 문항이 평균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情緒的 領域의 肯定的 表現 文항중 諸 독립변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몇 가지 내용을 製表한 것이 <표 4-2>이다.

吸煙에 관한 好寄心を 認定하는 정도는 男學生의 경우 36.1%로 나타났는데 "그저 그렇다"의 응답까지 이에 포함시킬 경우 대다수의 男學生이 吸煙에 관한 強한 好寄心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女學

生의 경우는 그 정도가 다소 낮아서 실제로 好寄心を 認定하는 경우는 9.8%에 지나지 않지만 "그저 그렇다"를 好寄心으로 포함시킬 경우 21.2%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결코 적지 않은 수임을 나타냈다. 學生의 단순한 好寄心이 吸煙動機가 된다는 사실은 기타의 研究結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임대빈(1976)<sup>37</sup>의 조사에서는 51.6%, 최의순과 박재순(1979)<sup>38</sup>은 40.49%, 민병근과 이길홍(1976)<sup>39</sup>은 41.7%, 이영숙(1983)<sup>40</sup>은 59.7%로 각각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好寄心を 吸煙모습을 멋있게 느끼는

37) 임대빈, "고등학교의 흡연실태조사 및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학석사, 1977.2.

38) 최의순, 박재순, 전제서, 304면.

39) 민병근, 이길홍, "한국청소년의 흡연양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976.

40) 이영숙, 전제서, 31면.

표 4-3. 정서적 긍정문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연령	성별	학년	부 생 유	모 존 무	부 의 학 력	모 의 학 력	가 족 수	형 제 수	가족내의 흡연자수	흡연경험 정도	교사흡연 에 관 한 수 용 도
12	0.00	-0.11**	0.01	-0.03	-0.00	-0.04	-0.06*	-0.06	0.08*	0.22**	-0.24**	
13	0.12**	-0.39**	0.09**	0.00	-0.04	-0.02	-0.07*	-0.08*	0.07**	0.43**	-0.29**	
14	0.13**	-0.23**	0.12**	-0.00	0.01	-0.01	-0.04	-0.02	0.05	0.37**	-0.26**	
15	0.10**	0.00	0.10**	0.05	-0.00	-0.00	0.01	-0.00	0.03	0.03	-0.01	
16	0.14**	-0.18**	0.11**	0.01	-0.04	-0.06	-0.00	-0.00	0.06*	0.24**	-0.16**	
17	-0.07*	0.12**	-0.04	-0.00	0.00	0.01	0.04	0.02	-0.14**	-0.27**	0.20**	
18	0.04	-0.16**	0.03	-0.04	-0.02	-0.02	-0.08*	-0.06	0.04	0.25**	-0.26**	
19	0.04	0.08*	0.06*	0.00	0.02	-0.00	-0.00	-0.03	0.13**	0.10**	-0.16**	
20	0.05	-0.14**	0.04	-0.01	-0.00	-0.02	-0.07*	-0.06*	0.08*	0.26**	-0.26**	

\*P < 0.05    \*\*P < 0.01

정도에 따라서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高學年보다 오히려 低學年에서 吸煙에 관한 態度를 심미안적으로 좋게 認知하는 정도가 높음이 발견되고 있다. 즉 1학년의 경우 23.6%인데 비해 2학년과 3학년은 1.32% 및 16.2%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情緒의 肯定표현 문항과 諸 변수간의 관계를 Pearson 相關係數로 살펴보면 <표 4-3>처럼 연령, 성별, 학년, 가족내의 흡연자수, 흡연 경험정도,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와 대체로 유의한 관계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⑬吸煙에 好好奇心이 있다"는 문항은 성별로는 逆關係로서, 흡연경험정도와는 順相關關係로서 -0.39 및 0.43의 높은 관계의 정도의 나타내었다. 즉 男學生일 수록 또한 吸煙經驗程度가 많을 수록 吸煙에 관한 好好奇心이 增加하고 있음을 제시해주었다.

<표 4-4>는 情緒의 領域의 否定的 표현 문항에 관한 態度를 보여주고 있는데 "흡연하면 성적이 떨어진 다"를 強하게 否認하는 態度는 학년별로 볼때 1학년의 경우 17.1%, 2학년은 1.8%, 3학년은 22.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高學年은 진학 및 취업의 준비 관계로 성적과의 이유를 붙여 好好奇心을 은닉하거나 또는 吸煙하는 學生을 成績遲進學生으로 보는 性向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結果는 정경임(1980)<sup>41)</sup>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14.2%가 吸煙을 했고, 보통반의 학생은 36.7%가 吸煙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영옥(1979)<sup>42)</sup>은 吸煙經驗과 成績과는 유의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結果와는 相反된 것으로 나타났다.

吸煙과 成績간의 研究는 많이 이루어 졌는데 Antioch 대학의 Earp 교수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또 Vermont 대학의 Bush 교수는 "대학생 吸煙者가 표현력, 지구력, 지각, 연상 등의 작용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는 등 기억력이 감소되고 학습능력이 저하 된다는 학설<sup>43)</sup>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價値觀이 體系化되지 못하고, 良心이나 道德觀의 形成에 있어서 혼돈과 갈등이 잦은 靑少年時期<sup>44)</sup>에 吸煙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高等學生의 進學 및 進路決定에는 많은 支障을 초래할 것이다.

"담배 냄새가 나쁘다"와 "담배가 싫다"는 문항을 教師의 吸煙에 관한 受容度間的 關係를 보면, 教師의 禁煙을 願하는 群에서 절대적으로(74.4%~92.3%) 吸煙을 否定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5>는 Pearson 相關係數로써 情緒의 否定 표

41) 정경임, 전계서, 63면.

42) 방영옥, 전계서, 100면.

43) Clark, H.Hull, "The Influence of Tobacco smoking on Mental and Motor Efficiency". 150.(1924).

44) 김성태, 발달심리학, (서울:법문사, 1977), pp.240.

표 4-4. 정서적 영역의 부정문항에 관한 흡연태도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안그렇다	전혀안그렇다	계
		No.(%)	No.(%)	No.(%)	No.(%)	No.(%)	
흡연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학 년	1 학 년	16 ( 7.4)	35 (16.2)	37 (17.1)	29 (13.4)	99 (45.9)	216 (100.0)
	2 학 년	4 ( 1.8)	25 (11.4)	46 (21.0)	40 (18.3)	104 (47.5)	219 (100.0)
	3 학 년	19 ( 9.0)	25 (11.8)	70 (33.0)	51 (24.0)	47 (22.2)	212 (100.0)
	계	89 (13.8)	112 (17.3)	202 (31.2)	132 (20.4)	112 (17.3)	647 (100.0)
$\chi^2 = 23.32 \quad df = 8 \quad P < 0.01$							
담배냄새가 나쁘다							
교사흡연에 관한수용도	좋아 보인다	8 (19.0)	4 ( 9.5)	10 (23.8)	5 (11.9)	15 (35.8)	42 (100.0)
	그저 그렇다	76 (42.9)	31 (17.5)	35 (19.8)	18 (10.2)	17 ( 9.6)	177 (100.0)
	다소 안피웠으면 좋겠다	222 (70.3)	37 (11.7)	36 (11.4)	15 ( 4.7)	6 ( 1.9)	316 (100.0)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90 (80.3)	14 (12.5)	6 ( 5.4)	0 ( 0.0)	2 ( 1.8)	112 (100.0)
	계	396 (61.2)	86 (13.3)	87 (13.4)	38 ( 5.9)	40 ( 6.2)	647 (100.0)
$\chi^2 = 142.22 \quad df = 12 \quad P < 0.01$							
담배가 싫다							
교사흡연에 관한수용도	좋아 보인다	4 ( 9.5)	0 ( 0.0)	13 (31.0)	4 ( 9.5)	21 (50.0)	42 (100.0)
	그저 그렇다	60 (33.9)	25 (14.1)	60 (33.9)	14 ( 7.9)	18 (10.2)	177 (100.0)
	다소 안피웠으면 좋겠다	189 (59.8)	46 (14.6)	50 (15.8)	21 ( 6.6)	10 ( 3.2)	316 (100.0)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84 (75.0)	13 (11.6)	8 ( 7.1)	4 ( 3.6)	3 ( 2.7)	112 (100.0)
	계	337 (52.2)	84 (13.0)	131 (20.2)	43 ( 6.6)	52 ( 8.0)	647 (100.0)
$\chi^2 = 187.27 \quad df = 12 \quad P < 0.01$							

표 4-5. 정서적 부정문항과 제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연 령	성 별	학 년	부모생존 유 무	부의학력	모의학력	가족수	형제수	가족내의 흡연자수	흡연경험 정 도	교사흡연 에 관한 수 용 도
45	0.21**	-0.34**	0.18**	0.02	-0.01	-0.03	-0.04	-0.02	0.13**	0.59**	-0.42**
46	0.18**	-0.32**	0.14**	0.03	0.01	-0.01	-0.05	-0.06	0.11**	0.52**	-0.41**
47	0.20**	-0.28**	0.20**	0.03	0.00	-0.04	-0.03	-0.04	0.06*	0.42**	-0.28**
48	0.13**	-0.19**	0.12**	-0.00	-0.00	-0.03	-0.03	-0.03	0.10**	0.34**	-0.24**
49	0.14**	-0.18**	0.14**	0.00	0.03	-0.02	-0.04	-0.08*	0.12**	0.29**	-0.26**
50	0.10**	-0.13**	0.08**	0.00	-0.07*	-0.09*	0.02	0.01	0.08*	0.28**	-0.19**
51	0.13**	-0.13**	0.13**	-0.06*	-0.04	-0.07*	0.02	0.00	0.01	0.17**	-0.16**

\*P < 0.05    \*\*P < 0.01

현 문항과 諸 변수와 관계의 방향과 관계의 정도를 알아본 것이다. 전술된 바와 유사하게 연령, 성별, 학년, 가족내 흡연자수, 흡연경험정도,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身體

的 領域이나 情緒的 肯定문항 보다는 諸 변수와 관계의 정도가 훨씬 더 깊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를 情緒的 領域別로 범주화하여 相關關係를 살펴 본 바 (표 4-6)에서 처럼 肯定 표현 문항이던 否定

표 4-6. 정서적 영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학 년	연 령	성 별	모의학력	가족내의 흡연자수	흡연경험 정 도	교사흡연에 관한수용도
긍정표현문항	0.19 (P<0.00)	0.21 (P<0.00)	-0.30 (P<0.00)	-0.06 (P<0.00)	0.12 (P<0.00)	0.50 (P<0.00)	-0.37 (P<0.00)
부정표현문항	0.19 (P<0.00)	0.21 (P<0.00)	-0.30 (P<0.00)	-0.06 (P<0.00)	0.12 (P<0.00)	0.50 (P<0.00)	-0.37 (P<0.00)

표 4-7. 단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정서적 영역 흡연태도의 영향요인

		R SQUARE	RSQ CHANGE	B	BETA
긍 정 표현문항	흡 연 경 험 정 도	0.25201	0.25201	0.2294795	0.34932**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0.28292	0.03091	-0.2146906	-0.19656**
	성 별	0.29235	0.00943	-0.2230039	-0.11596**
	학 년	0.30124	0.00889	0.1163957	0.09846**
		R <sup>2</sup> = 0.30124	ADJUSTED R <sup>2</sup> = 0.29689	F = 69.1939**	
부 정 표현문항	흡 연 경 험 정 도	0.25201	0.25201	0.2294795	0.34932**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0.28292	0.03091	-0.2146906	-0.19656**
	성 별	0.29235	0.00943	-0.2230039	-0.11596**
	학 년	0.30124	0.00889	0.1163957	0.09846**
		R <sup>2</sup> = 0.30124	ADJUSTED R <sup>2</sup> = 0.29689	F = 69.1939**	

\*P < 0.05    \*\*P < 0.01

표현 문항이던 관계없이 연령, 가족내 흡연자수, 흡연경험정도와는 順相關關係 성별, 母의 학력,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와는 逆相關關係를 나타내었다.

대체로 關係의 程度는 身體의 領域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情緒的 領域의 吸煙態度에 미치는 상대적인 重要 變數를 탐색한 것이 <표 4-7>이 된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吸煙經驗程度 였는데 이 변수 하나만으로도 學生의 吸煙態度를 25.2%를 설명할 수 있었고, 다음은 教師吸煙에 관한 수용도, 성별, 학년의 順으로 이 네 변수가 學生의 情緒的 領域의 吸煙態度를 30.1% 설명해 줄 수 있었다.

#### 4. 倫理的 領域에 關한 吸煙態度

8개의 肯定的 表現 문항과 7개의 否定的 表現 문항으로 구성된 倫理的 領域에 관한 吸煙態度는 平均 2.6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⑧時間과 場所를 알고 피우면 좋다”는 肯定的 表現 문항은 平均 3.96으로 비교적 強한 肯定的 態度를 보였고 “⑨女性 吸煙은 용납할 수 있다”는 平均 1.98로 否定的 態度를 나타냈다. 女性의 吸煙에 관한 態度에서 방영옥(1979)<sup>45)</sup>은 64.11%, 정경임(1980)<sup>46)</sup>은 83.5%로 否定的으로 나타나 본 結果와 유사하다. 오늘날에 있어서 女性의 地位와 權利가 신장되고 男女同等權이 주장된다고 해도<sup>47)</sup>, 우리 나라의 傳統的 倫理觀은 女性의 吸煙을 健康에 대한 영향 못지않게 나쁜 것으로 認定하고 있음이 나타내지고

45) 방영옥, 전제서, 100면.

46) 정경임, 전제서, 64면.

47) 김영모, 한국사회학, (서울: 법문사, 1979), pp.120~129.



있다.

否定的 表現 문항중 “㉓成人도 吸煙하면 안된다”는 平均 3.05로 肯定的이었고 “㉔버스나 전철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吸煙은 안된다”는 平均 1.27로 대체로 강한 否定的 態度를 나타내고 있었다.

“男學生 吸煙은 괜찮다”는 肯定的 표현 문항에 관한 응답태도를 유의미했던 差異를 보였던 諸 변수별로 記號한 것이 <표 5-2>이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이 인정하는 정도가 25.1%에 비해, 여학생이 부정하는 정도가 74.8%로 크게 차이가 있다.

學年別로 보면, 1학년의 경우 12%가 肯定態度를 보이고, 2학년은 16%가, 3학년은 28.3%로써 학년이 올라가면서 吸煙에 대한 選好도가 상승했다.

年齡別로 보면 15세가 10.5%가 肯定態度를 나타냈

으며, 16세는 11.3%, 17세는 21.3%, 18세는 33%, 19세는 50%가 肯定態度를 나타내 學年과 마찬가지로 年齡이 높아지면서 肯定態度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는 Salber(1961)<sup>48)</sup>가 靑少年의 吸煙行爲는 연령과 有의적인 相關關係가 있음을 表明한 바 있어 本 調査에서도 有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임(1980)<sup>49)</sup>은 未成年吸煙에 대해 57.1%가 反對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영숙(1983)<sup>50)</sup>은 64.3%가 否定的 態度를 보여 本 結果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學生 스스로는 未成年期 吸煙에 대해 否定的 態度를 보이면서도 실제 行爲上으로는 吸煙하는 學生이 있어 問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學生의 上反된 樣相은 身體的 측면과 더불어 情緒的·倫理的 측면에서 禁煙教育을 해야 함이 重要視 되고있다.

<표 5-3>과 <표 5-4>는 倫理的 문항과 諸 변수간

표 5-1. 윤리적 영역에 관한 흡연태도

		평균±평균편차	1	2	3	4	5
			전혀 안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표 현 문 항	4	3.45 ± 1.37					
	5	3.40 ± 1.33					
	6	3.96 ± 1.24					
	7	3.32 ± 1.37					
	8	3.04 ± 1.40					
	9	1.98 ± 1.25					
	10	2.20 ± 1.26					
11	3.28 ± 1.33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매우 그렇다		전혀 안그렇다		
부정 표 현 문 항	38	1.57 ± 0.88					
	39	2.23 ± 1.42					
	40	1.98 ± 1.21					
	41	2.70 ± 1.31					
	42	1.75 ± 1.17					
	43	3.05 ± 1.29					
	44	1.27 ± 0.68					
윤리적영역총평균		2.61 ± 0.73					

48) Salber, E.J., Goldman, E., "Smoking habits of high school students in Newton, Massachusetts", New Eng. J.Med. Vol. 265, No.20. 1961, pp.969~974.

49) 정경임, 상계서, 64면.

50) 이영숙, 전계서, 17면.

표 5-2. 「남학생 흡연은 괜찮다」에 관한 흡연태도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안그렇다	전혀안그렇다	계
		No.(%)	No.(%)	No.(%)	No.(%)	No.(%)	
성 별	남	21(6.5)	60(18.6)	79(24.5)	81(25.2)	81(25.2)	322(100.0)
	여	17(5.2)	23(7.1)	42(12.9)	53(16.3)	190(58.5)	325(100.0)
		$x^2 = 77.90$ df = 4 P < 0.01					
학 년	1 학 년	8(3.7)	18(8.3)	33(15.3)	54(25.0)	103(47.7)	216(100.0)
	2 학 년	9(4.1)	26(11.9)	32(14.6)	41(18.7)	111(50.7)	219(100.0)
	3 학 년	21(9.9)	39(18.4)	56(26.4)	39(18.4)	57(26.9)	212(100.0)
		$x^2 = 47.55$ df = 8 P < 0.01					
연 령	15 세	2(2.1)	8(8.4)	12(12.6)	25(26.3)	48(50.6)	95(100.0)
	16 세	7(3.4)	16(7.9)	41(20.2)	45(22.2)	94(46.3)	203(100.0)
	17 세	16(7.0)	32(14.0)	39(17.0)	41(17.9)	101(44.1)	229(100.0)
	18 세	13(11.0)	26(22.0)	29(24.7)	22(18.6)	28(23.7)	118(100.0)
	19 세	0(0.0)	1(50.0)	0(0.0)	1(50.0)	0(0.0)	2(100.0)
		$x^2 = 47.37$ df = 16 P < 0.01					
흡 연 경 험 정 도	비 흡 연 자	23(4.4)	43(8.2)	77(14.8)	117(22.4)	262(50.2)	522(100.0)
	과 거 흡 연 자	0(0.0)	5(15.2)	14(42.4)	10(30.3)	4(12.1)	33(100.0)
	1-4 / mon	0(0.0)	4(40.0)	5(50.0)	1(10.0)	0(0.0)	10(100.0)
	1-6 / week	1(5.9)	4(23.5)	6(35.3)	4(23.5)	2(11.8)	17(100.0)
	1-5 / day	10(27.8)	8(22.2)	13(36.1)	2(5.6)	3(8.3)	36(100.0)
	6-10 / day	2(10.5)	14(73.7)	3(15.8)	0(0.0)	0(0.0)	19(100.0)
	10이상 / day	2(20.0)	5(50.0)	3(30.0)	0(0.0)	0(0.0)	10(100.0)
			$x^2 = 208.74$ df = 24 P < 0.01				
교 사 흡 연 에 관 한 수 용 도	좋 아 보 인 다	9(21.4)	18(42.9)	8(19.0)	1(2.4)	6(14.3)	42(100.0)
	그 저 그 령 다	11(6.2)	34(19.2)	44(24.9)	46(26.0)	42(23.7)	177(100.0)
	다 소 안 피 왔 으 면 좋 겠 다	13(4.1)	23(7.3)	58(18.4)	67(21.2)	155(49.0)	316(100.0)
	절 대 로 피 우 면 안 된 다	5(4.5)	8(7.1)	11(9.8)	20(17.9)	68(60.7)	112(100.0)
		$x^2 = 117.85$ df = 12 P < 0.01					
계		38(5.9)	83(12.8)	121(18.7)	134(20.7)	271(41.9)	647(100.0)

의 相關關係를 Pearson 相關關係로 살펴보았는데, 연령, 성별, 학년, 가족내의 흡연자수, 흡연경험정도,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와 대체로 유의한 관계가 깊은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㉕ 男子의 吸煙은 容納할 수 있다”는 문항은性別로는 역관계로서 吸煙經驗程度와는 順相關關係로서 -0.42, 0.33의 높은 관계의 정도를 나타냈고, “㉖ 男學生 吸煙은 靚찮다”는 문항 또한性別로는 역관계로서 흡연경험정도와는 順상관계로서 -0.28,

0.44의 높은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 男學生일수록, 吸煙經驗程度가 많을 수록 男子와 男學生의 吸煙을 許容해 禁煙指導에 크나큰 애로점이라 생각된다.

반면 “㉗ 女子의 吸煙을 容納할 수 있다”는 문항은 성별, 흡연경험정도 모두가 順상관계로서 男女 모두가 吸煙經驗이 많을 수록 女子의 吸煙을 容納하지만 關係의 程度는 0.13, 0.09로 낮게 나타났다.

〈표 5-5〉는 이상과 같은 결과를 倫理的 領域別로 범주화해서 살펴본 것이다.

표 5-3. 윤리적 긍정문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연령	성별	학년	부모생존유무	부의학력	모의학력	가족수	형제수	가족내의흡연자수	흡연경험정도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4	0.14**	-0.18**	0.13**	-0.01	0.07*	0.00	-0.00	-0.02	0.04	0.23**	-0.17**
5	0.13**	-0.42**	0.12**	-0.02	0.01	-0.01	-0.03	-0.05	0.13**	0.33**	-0.30**
6	0.04	-0.04	0.07*	-0.02	-0.08*	-0.08*	0.03	0.05	0.05	0.16**	-0.16**
7	0.09**	-0.07**	0.09**	-0.04	-0.01	-0.01	0.00	0.01	0.11**	0.24**	-0.21**
8	0.10*	-0.28**	0.11**	-0.02	0.10**	0.08	-0.02	-0.02	0.08*	0.28**	-0.24**
9	0.06*	-0.13*	0.03	-0.00	0.03	0.04	0.00	0.02	0.05	0.09**	-0.47**
10	0.22**	-0.28**	0.22**	-0.01	0.02	0.02	-0.02	-0.03	0.13**	0.44**	-0.34**
11	0.11**	-0.15**	0.12**	0.01	0.00	-0.00	0.01	-0.01	0.12**	0.24**	-0.21**

\*P < 0.05    \*\*P < 0.01

표 5-4. 윤리적 부정문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연령	성별	학년	부모생존유무	부의학력	모의학력	가족수	형제수	가족내의흡연자수	흡연경험정도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38	0.12**	-0.18**	0.10**	0.08*	0.02	-0.04	-0.05	-0.05	0.08*	0.33**	-0.31**
39	0.03	0.11**	0.01	0.02	-0.00	0.00	-0.01	-0.01	-0.00	0.08**	-0.16**
40	0.14**	-0.22**	0.12**	-0.03	-0.02	-0.01	-0.01	-0.03	0.09**	0.38**	-0.29**
41	0.16**	-0.26**	0.13**	0.00	0.00	-0.03	-0.07*	-0.06*	0.12**	0.34**	-0.30**
42	0.09**	-0.01	0.05	-0.00	0.00	0.03	-0.01	-0.02	0.03	0.16**	-0.17**
43	0.10**	-0.19**	0.09**	-0.03	0.02	0.01	-0.00	-0.01	0.16**	0.29**	-0.29**
44	-0.07*	-0.13**	-0.09*	-0.03	-0.00	-0.03	-0.02	-0.06*	0.12**	0.13**	-0.20**

\*P < 0.05    \*\*P < 0.01

표 5-5. 윤리적 영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학년	연령	성별	모의학력	가족내의흡연자수	흡연경험정도	교사흡연에 관한수용도
긍정표현문항	0.17 (P < 0.40)	0.17 (P < 0.40)	-0.25 (P < 0.40)	0.00 (P < 0.40)	0.14 (P < 0.00)	0.38 (P < 0.00)	-0.34 (P < 0.00)
부정표현문항	0.10 (P < 0.00)	0.14 (P < 0.00)	-0.18 (P < 0.00)	-0.01 (P < 0.34)	0.13 (P < 0.34)	0.38 (P < 0.34)	-0.38 (P < 0.34)

否定표현, 肯定표현 관계 없이 諸 독립변수와 관계의 정도가 가장 깊은 변수는 吸煙經驗程度와 教師吸煙에 관한 受容度로서 Pearson 상관계수가 각각 0.38, -0.38로 나타나 매우 유의한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倫理的 領域은 신체적 영역보다 關係의 程度가 깊고, 情緒的 領域변수 보다는 諸 독립변수와의 관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段階的 回歸分析에 의하여 倫理的 領域의 吸煙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關聯要因을 살펴본 바는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흡연경험정도,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학년, 성별, 가족내의 흡연자수의 5개 변수가 순서대로 肯定 문항의 吸煙態度를 21.8%로 說明할 수 있었고 吸煙

표 5-6. 단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윤리적영역 흡연태도의 영향요인

		R SQUARE	RSQ CHANGE	B	BETA
긍 정 표현문항	흡연경험정도	0.15052	0.15052	-0.1260016	-0.21028**
	교사흡연에 대한 수용도	0.18886	0.03835	0.2154160	0.21623**
	학 년	0.19861	0.00975	-0.1174739	-0.10894**
	성 별	0.20933	0.01072	0.2126724	0.12125**
	가족내의 흡연자수	0.21757	0.00825	-0.4106664E-01	-0.09198**
		R <sup>2</sup> = 0.21757	ADJUSTED R <sup>2</sup> = 0.21147	F = 35.6493**	
부 정 표현문항	흡연경험정도	0.14439	0.14439	0.1273225	0.24932**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0.20003	0.05565	-0.2193577	-0.25832**
	가족내의 흡연자수	0.20427	0.00424	0.2503440E-01	0.06711**
	연 령	0.20674	0.00247	0.3999329E-01	0.05133**
	형 제 수	0.20804	0.00130	-0.3029857E-01	-0.03621**
		R <sup>2</sup> = 0.20804	ADJUSTED R <sup>2</sup> = 0.20186	F = 33.6766**	

\*P < 0.05    \*\*P < 0.01

經驗程度, 教師吸煙에 관한 受容度, 家族內的 吸煙者數 年齡, 兄弟數의 5개 변수가 否定문항의 吸煙態度를 20.8%로 說明해줄 수 있었다.

5. 其他 領域에 관한 吸煙態度

기타 領域은 모두 否定的 表現으로된 9개 문항으로 構成되었는데 (표 6-1)에서 처럼 平均 2.29의 否定的 態度를 나타내주었다.

세부적으로는 “㉔法으로 吸煙을 막아야 한다”는 문항이 平均 3.56으로 가장 강한 否定的 態度를 보였고, “㉒吸煙室·吸煙區域을 만들자”가 平均 1.63으로 가장 높은 肯定的 態度를 보여주었다.

“㉓담배의 수입·생산·판매를 줄이거나 없애자에 1.98로 매우 肯定的 態度를 보였으며 조상문(1973)<sup>51</sup>은 담배의 국가전매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群이 55.8%, 찬성하는 群이 33.0%이었고 방영옥(1979)<sup>52</sup>은 전매사업에 반대하는 群이 39.11%, 찬성하는 群이

표 6-1. 기타영역에 관한 흡연태도

번 수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매우 그렇다			전혀 안그렇다	
52	1.74 ± 1.03					
53	2.18 ± 1.22					
54	1.98 ± 1.18					
55	2.34 ± 1.10					
56	1.85 ± 1.10					
57	1.95 ± 1.40					
58	3.39 ± 1.38					
59	3.56 ± 1.36					
60	1.63 ± 1.01					
기타영역총평균	2.29 ± 0.78					

51) 조상문, 전제서, 78면.

52) 방영옥, 전제서, 100면.

표 6-2. 기타영역에 관한 문항별 흡연태도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안그렇다	전혀안그렇다	계
		No.(%)	No.(%)	No.(%)	No.(%)	No.(%)	
금연운동을 원한다							
교사흡연에 관한수용도	좋아 보인다	10(23.8)	5(11.9)	13(31.0)	4(9.5)	10(23.8)	42(100.0)
	그저 그렇다	56(31.6)	57(32.3)	46(26.0)	13(7.3)	5(2.8)	177(100.0)
	다소 안피웠으면 좋겠다	189(59.8)	61(19.3)	46(14.6)	11(3.5)	9(2.8)	316(100.0)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85(75.8)	18(16.1)	5(4.5)	3(2.7)	1(0.9)	112(100.0)
	계	340(52.5)	14(21.8)	110(17.0)	31(4.8)	25(3.9)	647(100.0)
$\chi^2 = 127.74 \quad df = 12 \quad P < 0.01$							
흡연은 마약과같이 나쁜것이다							
교사흡연에 관한수용도	좋아 보인다	7(16.7)	4(9.5)	13(31.0)	7(16.7)	11(26.1)	42(100.0)
	그저 그렇다	42(23.7)	38(21.5)	55(31.1)	28(15.8)	14(7.9)	177(100.0)
	다소 안피웠으면 좋겠다	143(45.3)	87(27.5)	49(15.5)	27(8.5)	10(3.2)	316(100.0)
	절대로 피우면 안된다	67(59.8)	23(20.5)	17(15.2)	2(1.8)	3(2.7)	112(100.0)
	계	259(40.0)	152(23.5)	134(20.7)	64(9.9)	39(5.9)	647(100.0)
$\chi^2 = 107.00 \quad df = 12 \quad P < 0.01$							

표 6-3. 기타문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연령	성별	학년	부모생존유무	부의학력	모의학력	가족수	형제수	가족내의 흡연자수	흡연경험정도	교사흡연에 관한수용도
52	0.03	-0.14**	0.01	-0.03	0.02	0.00	0.01	0.00	0.09**	0.17**	-0.23**
53	0.17**	-0.20**	0.12**	-0.05	0.05	0.00	-0.05	-0.04	0.09**	0.35**	-0.35**
54	0.13**	-0.21**	0.12**	0.01	0.00	-0.03	-0.10	-0.08*	0.06	0.35**	-0.32**
55	0.08*	-0.10**	0.09**	-0.02	-0.01	-0.09**	-0.01	-0.02	-0.04	0.16**	-0.24**
56	0.15**	-0.21**	0.13**	0.02	0.00	-0.06	-0.04	-0.05	0.13**	0.43**	-0.35**
57	0.20**	-0.35**	0.16**	0.03	-0.02	-0.05	-0.05	-0.04	0.12**	0.63**	-0.30**
58	0.13**	-0.10**	0.15**	-0.01	0.01	-0.01	-0.04	-0.02	0.12**	0.18**	-0.19**
59	0.14**	-0.22**	0.11**	-0.07*	0.02	-0.03	-0.02	-0.03	0.07*	0.30**	-0.28**
60	0.00	-0.09**	0.01	0.00	0.11**	0.08*	0.00	0.00	0.03	0.11**	-0.15**

\*P < 0.05    \*\*P < 0.01

37.6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매사업 조차否定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74.3%가 禁煙을 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광모(1986)<sup>53)</sup>는 高校生 吸煙者中 75%는 禁煙意思가 있으며 理由로는 健康이 45%, 記憶力의 減退우려를

21%로 들고 있으며, 정경임(1980)<sup>54)</sup>은 학업에 대한 支障要因으로 52.9%, 健康上的 이유로 26.5%를, 조상문(1973)<sup>55)</sup>은 吸煙者中 52.8%는 禁煙意思가 있고 理由는 85.9%가 健康上的 問題였다. 다소의 차이는 對象者의 性別, 학년, 연령의 差異로 解析되며,

53) 정광모, 전제서, 10면.  
54) 정경임, 전제서, 64면.  
55) 조상문, 전제서, 77면.

표 6-4. 기타영역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학 년	연 령	성 별	모의학력	가족내의 흡연자수	흡연경험 정 도	교사흡연에 관한수용도
0.16 (P<0.00)	0.19 (P<0.00)	-0.28 (P<0.00)	-0.03 (P<0.00)	0.12 (P<0.00)	0.47 (P<0.00)	-0.43 (P<0.00)

표 6-5. 단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기타영역 흡연태도의 영향요인

	R SQUARE	RSQ CHANGE	B	BETA
흡연경험정도	0.22934	0.22834	0.1613012	0.30167**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0.28856	0.06022	-0.2415732	-0.27174**
성 별	0.29676	0.00820	-0.1680885	-0.10739**
학 년	0.30321	0.00645	0.8070525E-01	0.08387**
R <sup>2</sup> = 0.30321 ADJUSTED R <sup>2</sup> = 0.29887 F = 69.8436**				

\*P < 0.05 \*\*P < 0.01

吸煙이 健康에 미치는 有害를 強調한 教育內容을 중심으로 教育 되어야 하며, 靑少年의 吸煙指導는 單시 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長期間의 안목으로 積 극적인 指導를 해야할 것이다.<sup>56)</sup>

〈표 6-3〉, 〈표 6-4〉는 諸 변수와의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고, 進술한 身體的, 情緒的, 倫理的 領域 別 吸煙態度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吸煙經驗 程度가 其他 領域에도 매우 重要한 變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외에 教師吸煙에 關한 受容度, 性別, 學年의 4 개 변수가 其他 領域의 吸煙態度를 30.3% 說明해 줄 수 있었다.

6. 身體的·情緒的·倫理的 및 其他 領域間的 相關關係

〈표 7〉은 身體的·情緒的·倫理的, 其他 領域間的 相關關係를 提報한 것이다.

모든 關係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其他 領域 과 情緒的 領域과의 關係는 0.75로 제일 높게 나타났 고, 0.39이상으로 유의하게 모두 나타났다.

〈표 8〉은 身體的, 情緒的, 倫理的, 其他 領域에 關 한 吸煙態度 中에서 가장 強하게 否定했던 문항 5개 와 가장 強하게 肯定했던 文항 5개를 순서대로 提報 한 것이다.

吸煙을 否定하는 표현문항 中에서 4문항이 身體的

표 7. 신체적영역·정서적영역·윤리적영역 및 기타 영역간의 상관관계

		신체적영역	정서적영역	윤리적영역	기타영역
긍정표현문항	신체적영역	1.00			
	정서적영역	0.54 (P<0.00)	1.00		
	윤리적영역	0.39 (P<0.00)	0.60 (P<0.00)	1.00	
부정표현문항	신체적영역	1.00			
	정서적영역	0.54 (P<0.00)	1.00		
	윤리적영역	0.39 (P<0.00)	0.60 (P<0.00)	0.65 (P<0.00)	
	기타영역	0.60 (P<0.00)	0.75 (P<0.00)	0.66 (P<0.00)	1.00

56) 김명호, 학교보건 및 실습(서울:수문사, 1978)pp.132~134.

표 8. 흡연태도 중 긍정·부정별 순위표

순 위	문 항	평균±표준편차	
부정표현문항	1	지나친 흡연은 몸에 나쁘다	1.12 ± 0.38
	2	흡연하면 임신·태아에 나쁜 영향을 준다	1.13 ± 0.43
	3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1.27 ± 0.62
	4	버스나 전철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흡연은 안된다	1.27 ± 0.68
	5	흡연은 폐에 나쁘다	1.31 ± 0.60
긍정표현문항	1	시간과 장소를 알고 피우면 좋다	3.96 ± 1.24
	2	흡연은 습관상 피우는 것이다	3.83 ± 1.32
	3	흡연하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인다	3.69 ± 1.23
	4	법으로 흡연을 막아야 한다	3.56 ± 1.36
	5	고교생의 흡연은 어른흡내로 피우는 것이다	3.52 ± 1.34

領域에 속했으며 吸煙을 肯定하는 표현문항 중에는 신체적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 IV. 要約 및 結論

男女高校生の 吸煙態度를 評價하고 그에 影響을 미치는 關聯要因을 탐색하고자 1988년 10월 21일에서 10월 26일 사이에 自由記述式 作文에 의한 120名 高等學生의 豫備調査結果를 통해 開發된 設問紙에 의하여 吸煙態度를 調査하였다.

吸煙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는 態度를 1點부터 吸煙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態度를 5點으로 測定할 수 있도록 Likert 5點尺度로 設問紙를 構造化 하였다.

回收된 設問紙는 712部였고 不充實한 資料 65部를 除外한 647部の 資料를 SPSS Package 를 利用하여 電算處理하였다. 또한 記述的 統計와 要因分析, Pearson 相關係數, 段階的 回歸分析을 利用하여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有意한 結論을 얻었다.

1. 男女高校生の 吸煙態度는 身體的·情緒的·倫理的·其他 領域別 各各 平均 1.78, 2.63, 2.61, 2.29로 나타나 대체로 否定的 態度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中 否定的 態度는 身體的 領域에서 제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吸煙이 健康에 有害하다는 態度는 形成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成人 準備期에 있는 靑少年이 情緒的·倫理的 및 其他 領域에서는 吸煙에 關해 강한 好奇心을 內在하고 있음을 立證하

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2. 吸煙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關聯要因으로 各 領域別로 가장 影響力이 큰 변수는 學生의 吸煙經驗程度 변수로서, 身體的 領域에서 가장 낮은 13.2%부터 情緒的 領域에서 가장 높은 25.2%로써 學生의 吸煙態度를 說明할 수 있었다. 즉 學生의 吸煙經驗이 점차 늘어갈 수록 吸煙을 認定하는 傾向을 보여줌으로써 潛在的 學生吸煙人口에 대한 保健教育의 重要性이 매우 重要視된다고 하겠다.

各 領域에 고루 나타나고 있는 重要한 변수로써 학년, 연령, 가족내의 흡연자수 변수는 順相關關係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性別, 母의 學歷과는 逆相關關係에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學年, 연령, 가족내의 흡연자수가 증가할 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교사흡연에 무관심하고 금연하기를 원할수록, 女學生일수록, 母의 학력이 높을수록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3. 신체적·정서적·윤리적·기타 영역에 관한 吸煙態度 중에서 가장 강하게 否定했던 문항은 첫째, 지나친 吸煙은 몸에 나쁘다(1.12) 둘째, 吸煙하면 임신·태아에 나쁜 영향을 준다.(1.13), 셋째, 吸煙은 건강에 해롭다.(1.27), 넷째, 버스나 전철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吸煙은 안된다.(1.27), 다섯째, 吸煙하면 폐에 나쁘다.(1.31)", 順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肯定했던 問項은 "첫째, 時間과 場所를 알고 피우면 좋다.(3.96), 둘째, 吸煙은 습관상 피우는 것이다.(3.83), 셋째, 吸煙하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인다. (3.69), 네째, 法으로 吸煙을 막아야 한다. (3.56), 다섯째, 高校生の 吸煙은 어른용내로 피우는 것이다. (3.52)順으로 나타났다.

4. 60個의 細部分항 中에서 肯定態度가 가장 強했던 문항은 身體的 領域에서 2.72를 나타낸 “③吸煙하면 體重을 줄일 수 있다”였고, 情緒的 領域에서는 平均 3.83을 나타낸 “⑤吸煙은 習慣上 피우는 것이다”였으며, 倫理的 領域에서는 平均 3.96을 나타낸 “⑥時間과 場所를 알고 피우면 좋다”였다.

否定態度가 가장 強했던 문항은 身體的 領域에서는 平均 1.12를 나타낸 “⑩지나친 吸煙은 몸에 나쁘다”였고, 情緒的 領域에서는 平均 1.82로 나타낸 “⑬담배 냄새가 나쁘다”였으며, 倫理的 領域에서는 平均 1.27을 보여준 “⑭버스나 전철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吸煙은 안된다”였으며, 其他 領域에서는 平均 1.63을 나타낸 “⑯吸煙室·吸煙區域을 만들자”로 나타났다.

以上の 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未成年과 女性의 吸煙에 對해서는 否定的 態度를 보이고, 成人의 吸煙態度에 對해서는 다소 肯定的 態度를 取하는 兩價感情을 갖고 있다. 또한 學年과 年齡이 높아지면서 學生吸煙經驗은 增加하고 있으며 學生들은 吸煙이 身體的 危害나 疾病과 直結된다는 知識과 態度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情緒的·倫理的·其他 次元에서 吸煙을 合理化하려는 矛盾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矛盾되는 心理的 準備 狀態에서 保健教育이 適期에 身體的·情緒的·倫理的 및 其他 領域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김성태, 발달심리학, (서울:법문사, 1977), pp.240.  
 김영모, 한국사회학, (서울:법문사, 1979), pp.120~129.  
 김명호, 학교보건 및 실습, (서울:수문사, 1978), pp.132~134.  
 김수길, “한국소년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논문별책, 1970. pp.19~48.  
 전영자, “비행소년의 성격특성과 개인 및 환경변화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제 1권 2호, 1974. pp.201~216.

정규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의학, 제39권 5호, 1980, pp.319~322.  
 박순영, “흡연과 건강”, 인간과학, 제 2 권 5호, 1978, pp.35~40.  
 조근수, “흡연과 건강은 당신의 선택”, 보건의세계, 1987년 3월호.  
 조근수, “수동적 흡연의 피해”, 보건의세계, 1987. 2. 한국전매청, 전매청통계연보, 1982년.  
 최신해, 금연의학, 대한의학협학회지, 제10권, 1967, pp.577~580.  
 박형규,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사회정책고려”, 대한의학협학회지, 제10권 8호, 1967. pp.545~548  
 이영숙, “서울 시내 일부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보건대학원, 1983.  
 정광모, “흡연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한국소비자연맹, 1986. 7.  
 최의순, 박재순, “서울 시내 여대생의 흡연실태조사” 중앙의학, 제38권 5호, 1980. pp.297~306.  
 조 회, “일부지방 고등학생들의 흡연·음주·습관성 약물 사용양상에 관한 조사(고 2 중심)”, 적십자 간호, 2. 2 (1979), pp.69~75.  
 방영옥, “일부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적십자 간호, 2. 2(1979), pp.95~105.  
 김기호, “흡연과 폐암”, 대한의학협학회지, 10권8호, 1967. pp.567~569.  
 김영설, 이찬세,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문헌고찰”, 결핵 및 호흡기질환, 24: 3, 1977, pp.119~130.  
 한용철, “흡연과 기관지염”, 대한의학협학회지, 10권 8호, 1967, pp.571~572.  
 임대민,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조사 및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학석사, 1977. 2.  
 민병근, 이길홍, “한국 청소년의 흡연양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976.  
 중앙일보, “여성·청소년 흡연인구 늘어 난다”, 1988. 4. 6 (9면)  
 정경임, 일부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104(80. 2), pp.60~67.  
 Larson, P.S and Silvette, H.: Tobacco;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ies, William & Wilkins Co., 1968.  
 Banyai A.L. Smoking, Some of its less Publicized Sequel, Chest 69: 1, 1976.  
 Herriot A. et Al., Cigarette Smoking as a Carcinogen, Am. Rev. Resp. Dis. 171: 105, 1975.



- Harvey Goldstein (1977). Smoking in pregnancy: Some notes on the statistical controversy. *Brit. J. Preve. Soci. Med.*, 31, 13-17.
- Pezer, V., "Teachers' Habits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Canadian Smoking and Health Programs (Sept.), 1964.
- Chen, T.L., Rakip, W.R., "The Effect of the teachers Smoking behavior on their involvement in Smoking education in the schools", *J. of School Health*; VOL.XLV.NO. 8, 1975, pp.455-461.
- Salber, E.J., Goldman, E., "Smoking Habits of High School Students in Newton, Massachusetts" *New Eng. J. Med.*, Vol. 256, No. 20, 1961, pp. 969-974.
- Kelson, S. R., Pulella, J.L., and Otterland, A., "The Growing Epidemic, A Survey of Smoking Habits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among Students in Grades 7 Through 12 in Toledo and Lucas Country Public Schools 1964 and 1971", *Amer. J. Pub. H.*, Vol. 65, No. 9, 1975, pp. 923-938.
- Taylor, I., Quoted in *Lancet* (Symposium), Vol.1, 1963, pp. 493-494.
- Hawthorne, V.M., *Smoking & Health*, *J. Epi. Comm. H.*, Vol. 32, No. 4, 1978, pp. 260-266.
- Bower, H.M., "Old Age in Western Society", *Med. J. Aust.*, Vol. 2, 1964, pp. 325-332
- Clark, H. Hull, "The Influence of Tobacco Smoking on Mental and Motor Efficiency", 150, (1924)

(ABSTRACT)

A Study and Investigation for the Attitude about Smoking of  
Boys' and Girls' High School in Seoul

Sim, Young Ae  
Dae Won High School

In spite of the lots of studies on the harmfulness of cigarette smoking to the body published by many researchers since 1950, cigarette smoking people are increasing in number especially, cigarette smoking by young and women causes a serious problem.

Examining the physiological motives of youth shows that, impulse which the youth want to immitate the adults, alluring curiosity, and defiant physiology of escaping from the norm of traditional groups which has been banned are cooperated well compoundly.

As the period of the youth is the one which they accumulate knowledge and charactor by learning as well as the period of growth mentally, and physically they should be rightly educated about smoking before they addicted to smoking and it is desirable for us to make the youth to understand how harmfully the smoking is to effect to their growth and mental soundness simply not as a social norm which they should not smoke.

The main motive of this study on the attitude of smoking by the youth is to give basic materials related on this field.

For this study, 647 questionnaires were used as studying material which were able to analyze among 720 questionnaires of 2 classes of each grade of 3 high schools among the high schools of boys, girls and co-educated in Seoul from Oct. 21, 1988 through Oct. 26, 1988.

Study Instrument are graded in Likert's 5 point from 40 questions which are 20 questions in affirmations and 20 questions in negations after analyzing the factors on 60 simple sentence questions which the students showed in preliminary studies.

And these are systemized to be measured from 1 point which means they think smoking is very bad to 5 points which means they think smoking is really good.

In these collected materials, technical statistics of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re used for general character and smoking attitude,  $\chi^2$ -test for examinng Independant variables of physical, emotional, ethical and other areas pearson's coefficient of correlation for related direction and degree and step-regression analysis for the degree of relative contribution of all variables which effect smoking attitud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moking attitude of high school boys and girls showed average of 1.78 in physical area, 2.63 in emotional area, 2.61 in ethical area, 2.29 in other area respectively in a negative attitude generally also the negative attitude are expressed most strongly in physical area. I've can also say by this results that smoking is harmful to their health and further more it can be judged that this proves the youth in the period of preparation be adults have a strong curiosity in the emotional, ethical and other areas.

2.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in each field as related factors effecting smoking attitude of the student can be explained from 13.2 in physical area the lowest experienced variables to 25.2 in emotional area the highest of degree of smoking experience.

The fact that the more the smoking experienced students are increasing in number the higher tendency which accept the smoking tells as the importance of health education about the population of latest student's smoking as important variables shown equally in each area.

Those of grade, age, numbers of smoking people in house are showed meaningful in pure interrelation.

Those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teacher's smoking, sex, mothors education are shown meaningful in opposite interrelations. This means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smoking people in grade age, the number of smoker in family have a affirmative attitude.

And people who are not interested in teacher's smoking wants to quit it, and whose mother's education is higher have a negative attitude.

3. The most negatively answered questions of the smoking attitude in physical, emotional, ethical and other areas are as belows;

Firstly too much smoking is harmful to our health is 1.12 point.

Secondly smoking have a ill-effect on pregnancy and embryo is 1.13 point.

Thirdly smoking is harmful to our health is 1.27 point.

Fourthly smoking in crowed area with the people such as in a bus or subway should be prohibited is 1.27 point. Fifthly smoking can ruin lungs is 1.31 point. And the most affirmatively answered questions are also as belows;

Firstly we showed smoke depending on time and place is 3.96 points.

Secondly smoking is just habit is 3.83 points.

Thirdly smoking people seem to be unable and deplorable is 3.69 point.

Fourthly smoking should be prohibited by law is 3.56 points.

Fifthly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is immitation of adults is 3.52 points.